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5월 28일(화)

「모하메드」 아랍에미리트연합국(UAE)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민 방한

- 아랍에미리트연합국(UAE) 현직 대통령 최초 국민 방문 -
- 창덕궁 후원에서 양국 정상 간 첫 친교 일정 소화 -

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(5/28, 화) 서울 창덕궁에서 국민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(UAE) 「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(Mohamed bin Zayed Al Nahyan)」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습니다.

이번 국민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,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민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, 친교 만찬, 공식 환영식,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.

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습니다.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습니다.

이어서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'학연화대무(鶴蓮花臺舞)'를 관람했습니다.

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'학연화대무'는 국조(國鳥)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되었습니다.

* 학연화대무(鶴蓮花臺舞):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래된 학무와 연화대 정재(呈才)를 차례대로 합설하여 추는 궁중무용

공연을 관람한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눴습니다.

양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마친 후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하여 친교 만찬을 하며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,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'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'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.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,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. <끝>